

다산포럼

송재소



명동의 기적, 김수환 추기경을 애도하는 인과가 4일간 40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 새벽 6시부터 자정 무렵까지 강추위에 떨며 4~5시간을 기다려야 추기경의 마지막 모습을 잠깐 볼 수 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년간 것을 '명동의 기적'이라 불려도 좋을 듯하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추기경에게 열광하는 것일까? 어린 시절, 자라면서 장사를 해서 25세에 가정을 꾸리고 30세에는 어머니에게 인상을 사드리겠다는 소박한 꿈을 지녔던 소년인 47세의 나이로 세계 최연소 추기경이 되어 그동안 걸어왔던 성직자로서의 큰 결음이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을 것이다.

솔직한 고백에 깊은 감동

나 개인적으로는 추기경의 인간적인 품모가 가슴에 와 닿았다. 추기경은 회고록에서 이렇게 말했다. "결혼해서 오순도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다. 글썽해서 저녁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시골 오두막집 풍경, 얼마나 정겨운 풍경인가." 추기경인들 여겨 인간적인 고뇌가 없었을까. 이런 인간적인 고뇌를 솔직하게 털어놓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분은 또 추

심산 김창숙과 김수환 스테파노

기경 임명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의 감회를 이렇게 술회하기도 했다.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에서 인정받았던 사실이나 만들려고 하는 지자체장들이 있다면 이는 고통 받는 국민을 가지고 농락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도망간다'는 것이 성직자의 길을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었을 것이지만 얼마나 솔직한 고백인가. 이런 인간적인

면도 때문에 사람들은 그에게 이끌렸을 것이다. 그동안 신문과 인터넷에 소개된 수많은 일화 이외에 비교적 덜 알려진 이야기 한 토막을 여기서 소개하고자 한다.

몇 년 전 성균관대학교의 심산(心山)을 수여하기로 결정한 일이 있었다. 이 상은 독립투사이자 성균관대학교의 설립자인 심산(心山) 김창숙(金昌淑)선생의 업적을 기려서 제정한 상인데,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 적지 않은 내부의 진통이 있었다.

심산(心山) 김창숙(金昌淑)선생은 저명한 유학자이다. 유학자인 심산(心山) 김창숙(金昌淑)선생은 주는 상을 기쁘고 인이 받아서 되겠다는 논란이 있었던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수상자가 있었기로 결정하고 추기경의 의사를 타진한 결과 추기경은 수상을 흔쾌히 수락하셨다.

그런데 심산상을 수상한 사람은 심산(心山) 김창숙(金昌淑)선생이 아니라 김수환 추기경이었다. 심산(心山) 김창숙(金昌淑)선생은 주는 상을 기쁘고 인이 받아서 되겠다는 논란이 있었던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수상자가 있었기로 결정하고 추기경의 의사를 타진한 결과 추기경은 수상을 흔쾌히 수락하셨다.

추기경으로부터 받은 감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성균관대학교의 심산(心山) 김창숙(金昌淑)선생의 업적을 기려서 제정한 상인데,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 적지 않은 내부의 진통이 있었다.

종교 초월 '국민 할아버지'

추기경으로부터 받은 감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성균관대학교의 심산(心山) 김창숙(金昌淑)선생의 업적을 기려서 제정한 상인데,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 적지 않은 내부의 진통이 있었다.

추기경은 이런 분이였다. 그분에게는 유교와 기독교의 장벽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고 가셨기에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이 그분께 그분의 선행(善行)을 아끼워하는 것이리라 생각한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F1 지원법' 政爭에 밀려 또 표류하나

F1 지원법(F1 포뮬러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법)이 여야의 정쟁(政爭)에 밀려 또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2월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상 물건너가게 된 것이다.

23일 국회 국제경기지원특위 민주당 간사인 조영택 의원에 따르면 F1 지원법의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등을 논의할 국제경기지원 특위가 오는 27일 개최될 예정이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 일정이 다음달 2일까지라는 점에서 주말을 제외하면 국회 회기는 단 하루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다. 물리적으로 F1 지원법의 이날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국회 절차상 F1 지원법이 다음달 2일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국회 국제경기지원 특위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 및 전체회의를 각각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문화관광체육부 등 정부의 반대 입장이 여전한데다 F1 지원법 처리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확고

한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F1 지원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어려워진 데에는 무엇보다도 여야가 미디어법 등 '법안 전쟁'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F1 지원법이 쟁점 법안 아니라는 점에서 여야로부터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18개 중점 처리 법안에서 F1 지원법은 제외했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 일정이 다음달 2일까지라는 점에서 주말을 제외하면 국회 회기는 단 하루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다. 물리적으로 F1 지원법의 이날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F1대회는 국가와 전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꿈의 프로젝트'이다. 민주당은 F1대회의 파급효과 등을 알릴 때마디 F1 지원법 통과에 협조를 약속했지만, 여야 의원들의 확고한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노사민정 '대타협' 위기극복 견인차 되려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가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 민간 등 각 경제 주체의 고통 분담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했다.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가 23일 노사 양부와 정부의 지원, 영세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다. IMF 환란 이후 11년 만에 노사민정이 대타협을 이룬 것은 높이 살만 하다.

이번 대타협에서 노동계는 임금동결·반납 또는 절감기로 하고, 경영계는 해고를 자제해 기존 고용수준 유지를 약속했다. 노사가 서로 양보한 것이다. 또 교대제 개편, 근로시간 단축, (순환)휴직·휴업 및 무급안식월(년) 제도 도입 등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실천하기로 했다. 노사가 고통분담과 상생·협력의 통해 경제난을 극복하기로 한 것은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민에게 희망을 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사회적 쟁점인 비정규직 문제가 제외됐고 민주노총과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까지는 협조가 예상된다.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 신민군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지 않은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민정 대타협이 실효를 거두려면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이번 대타협에 불참한 민주노총과 경실련 등을 깨어는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탄력적으로 나서야 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도 정부의 몫이다.

無等鼓

지난 16일 김수환(스테파노) 추기경이 선종(善終)한 지 1주일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도 그의 족적을 기리는 여론이 크다. 가톨릭 신자야 말할 것 없고, 다른 종교나 종교가 없는 이들까지도 김 추기경의 일생을 되돌아보며 숙연해 하고 있다.

사람들은 종교의 최고 지도자가 유명을 달리했을 때 그들의 생을 반추하며 외경심을 갖곤 한다. 김 추기경에 대한 추모가 남다른 것은 그가 평생 낮은 곳을 향하며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의 편에 서왔다는 데 있는 듯싶다.

언뜻 성직자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의 궤적을 단순하지 않다. 5·16 쿠데타와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바뀌는 민중들의 수난이 극에 이르렀을 때 김 추기경은 스스로 고뇌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왔다.

김 추기경은 때로는 인간의 기본권마저 박탈당한 채 노동에 시달려야 하는 방직공장의 여공들과 함께, 사랑하는 이의 목숨이 언제 달아날지 몰라 애간

을 태우던 사형수의 가족들과 가슴 졸였다.

국내 가톨릭의 최고 지도자였지만 정치 권력과 맞서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김 추기경이 시국과 관련해 만난 자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왜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려 하나냐"는 말을 듣고서도 꺾이지 않았을 것이다. 사제들이 경찰에 연행되거나, 광주민주화운동 참여자들의 회생 소식을 들었을 때 김 추기경은 자신이 그 고통을 대신하지 못한 것을 무척이나 괴로워했다고 한다.

최근 일부에서 그를 신앙과 성덕(聖德)이 특히 뛰어난 성인(聖人)으로 추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요건이 까다로우며 좀더 냉정하게 기다려보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종교적인 차원의 논의를 뛰어넘어 평생 진정한 사랑을 베풀고 간 김 추기경은 많은 사람의 가슴에 이미 성인으로 자리 잡았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박치영 정치부장 unipark@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NGO 칼럼

김영집



지금 우리 지역의 경제는 몇 시인가? 1월 광주와 전남의 어음부담율은 각각 0.09%와 0.11%를 기록 전국평균의 2배에 달했다. 제조업체의 평균가동률은 70%이고 1인당 지역총생산은 전국 최저수준이다. 매년 LG경제연구원 발표하는 국민생활고지수수는 더 안좋아졌다. 2008년 광주의 체감실업률은 16개 시도중 2위이고, 생활고지수수는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또 얼마보다 밤에 관심이 많다고 현장 대책은 내지 않고 흑여 내년 지방선거와 연결시켜 조직이나 만들려고 하는 지자체장들이 있다면 이는 고통 받는 국민을 가지고 농락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위기의 지역경제...배운 지혜 실천하라

당이 문을 닫고, 기아자동차 공장은 일거리가 없어 휴업을 해야 할 형편이다. 자동차와 전자 중소기업들의 부도, 자영업자들의 폐업, 늘어나는 실직자로 광주경제는 암울하다.

할 제정을 뚫아 풀어 모아 큰 사회서비스 사업을 벌여 수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서민들에 대한 직접적 생활지원에 투입해야 한다. 어려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세금을 대폭 감면해줘야 한다. 지역물가단속으로 서민생활을 안정시켜줘야 한다.

이삿짐 사다리차 주변, 안전거리 확보 사고 예방해야

며칠 전 집 밖에서 굉음이 나기에 베란다 창문을 열고 봤더니 옆 동네 사람이 이삿짐을 와서 이삿짐을 옮기고 있었다. 그런데 사다리차가 정전없이 일하는 주변을 봤더니 물건을 옮기고 내려는 바닥 주변에 사다리차의 작업 모습을 지켜보는 아이들의 꼭꼭였다.

그 작업 반경 10~20m 범위 내에는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안전요원이 필수로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다리차 하나 운행하자고 그런 인원까지 배치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영세 업자들 이란 점을 감안해 볼 때 불가능한 일이다.

기고

박인수



얼마 전에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광주 엠블럼이 우리 전통의 북타치로 U자를 형상화하면서 우리 광주의 상징인 빛을 나타내고 있어 세계의 젊은이들이 다함께 즐기고 우의를 다진다는 진취적 기상을 담아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를 이루고 있어 진정 우리도 이 엠블럼의 뜻과 같이 다 같은 한마음을 한뜻으로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광주 엠블럼의 뜻과 같이 다 같은 한마음을 한뜻으로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광주 엠블럼의 뜻과 같이 다 같은 한마음을 한뜻으로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생각해 보고

하계 U 대회 기필코 광주로

있었다.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정식종목 10개와 선택종목 7개로 경기가 펼쳐지는데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에서 대회를 주관하게 되어 있어 그 규모는 정말 대단하다. 지금, 2015년에 광주에서 개최되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상상만 해도 가슴 설렌다.

또 우리 지역의 체육 인프라 확충은 물론이고 노후된 체육 시설의 보수와 정비를 통해 시설의 현대화를 도모할 수 있어 앞으로 수없이 많은 국제적 경기를 유치하는데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식상한 대학 학위복, 학교 전통·맛 살려 개량했으면

팔과 조카들의 대학졸업식에 참석하고서 느낀 우리 대학들의 학위복장이 너무 천편 일률적이고 진부하다는 점이다. 학위복은 기본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는 졸업생에게 성취감을 주고,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느끼게 해주기도 한다.

우면 한다. 물론 성균관대가 조선시대 유생들이 입던 복장인 심의를 착안하여 학위복을 개량했고 중앙대 국악대에서 학창의(學窓衣)라는 전통을 살린 학위복이 있긴 하지만 미미하기 짝이 없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편집국장 李慶完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72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치부 2200-634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매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경제부 2200-641	여론제작부 2200-679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 1부 2200-612	체육팀 2200-663	다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222-4267〉	사건부 2200-691	〈F A X 02-773-9335〉	
	조사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